

순천시, 왜장 동상 건립 계획 ‘논란’

평화공원내 임진왜란 일본 선봉장 동상건립 추진
시민 반발하자 찬반 설문 조사하려다 여론 못매

순천시가 35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한·중·일 평화공원(이하 평화공원)을 조성하면서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선봉장으로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고니시 유키나가 동상을 건립하려다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즉각 동상 건립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시청 방문객을 상대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려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왜장 동상 건립계획을 취소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순천시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해 착공한 뒤 2025년까지 약 350억원을 들여 평화광장, 상징탑, 역사 기념관, 교육관, 체험장 및 탐방로 등을 조성한다.

순천시는 해룡면 신성리 순천왜성과 옛 충무초 일원에 조성되는 평화공원에 정유재란 당시 3국을 대표하는 장수들의 동상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조선에서는 권율과 이순신 장군, 명에서는 진린과 등자룡, 왜에서는 고니시 유키나가 등 총 5명에 무명의 민중들과 병사들의 군상을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의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 동상 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순천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른 왜장의 동상을 혈세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순천시청은 조선 침략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 동상을 세우기로 만들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됐다.

순천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순천시

는 지난 14일 순천시는 읍·면·동에 동상 건립에 관한 설문지를 비치하고 21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설치여부를 결정한다고 공지해 다시 한번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높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방식도 아니고 시청방문객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순천시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순천시민 김모씨 (66·조례동)는 “무슨 생각으로 혈세를 들여 왜장의 동상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한심스럽다”며 “시민들이 반발하면 즉각 계획을 철회할 일이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시국에 무슨 찬반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어차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왜장 동상 건립계획에서부터 찬반 여론 조사까지 순천시의 잇단 헛발질에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자 순천시는 무명의 민중들과 병사들의 군상만 평화공원에 설치하고 고니시 유키나가를 제외한 동상은 논의를 거쳐 다른 장소에 설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여론은 이미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태여서 상당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순천시민 A씨는 “조선사람들의 코와 귀를 베어간 특급전범의 동상을 세운다는 발상도 기가 막히고, 뒤늦게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더니 며칠 만에 동상 건립을 포기한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생각없는 무책임한 행정을 보니 순천시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비꼬았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보성 온택트 추석명절 합동차례 지난 19일 제8회 보성세계차엑스포가 온택트로 열린 가운데 특설무대에 차려진 차례상에 김철우 보성군수가 차를 올리고 있다. 이날 보성군은 코로나19로 고향에 오지 못하는 출향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위해 온라인 합동차례를 준비해 생방송으로 보성세계차엑스포 공식홈페이지 방송채널로 생중계로 송출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보성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고도화 추진

77개 마을 혜택 예상

보성군이 연말까지 농어촌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을 끝마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농어촌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전남에서는 보성군이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최대 50Mbps급 이하의 속도로 운영중인 마을이 월 사용요금에 따라 1Gbps까지 약 20배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서비스로 지정하면서 통신사는 주민이 원할 경우,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해야 하지만 통신사가 설치되지 않은 오지·산간벽지 등은 가입자와 통신사가 설치비용을 공동분담해야 해 주민들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 전남도, (주)KT 간 매칭펀드로 진행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단독가옥이 인터넷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별도의 구축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보성군은 이번 사업으로 약 77개 마을과 200여 단독가옥이 초고속 인터넷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구례 환경오염 특별감시 방지시설 미가동 등 점검

구례군이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취약시기인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수원 수계 및 오염 의심지역, 농공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지시설 미가동과 고의적인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따라 구례군은 하천변, 배출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고흥 항구적 재해예방 사업 ‘청신호’

‘풍수해 정비’ 공모 선정...4년간 460억원 투입

고흥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에 고흥읍지구가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460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고흥읍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고흥읍 시가지를 관통하며 흐르는 고흥천이 협소한 폭과 고흥시장 주변 저지대의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계속돼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

한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내년부터 4년간 사업비 460억원을 투입해 고흥천 호안정비 5.4km와 노후교량 재가설 9개소, 봉황산 급경사지 정비 등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집중호우 시 침수위험에 노출돼있는 고흥읍을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고흥읍 침수예방 사

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고흥읍 침수사례 조사와 봉황산 주변 급경사지 개선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이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고흥천 주변을 상습침수로부터 항구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광양희망도서관 직원들이 이만조씨가 기증한 책을 정리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 출향인 이만조씨, 도서 3,300권 기증

광양희망도서관이 광양시 출향인사로 부터 기증받은 어린이 책 3,300권을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돌봄 기관 10곳에 200~300권씩 나눠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서 기증자는 30여 년간 어린이 전집 출판계에서 활동해온 이만조씨로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에서 태어나 광양서초와 광

양중을 졸업했다.

희망도서관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독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던 기증자의 뜻에 따라 도서관 등록 도서 300권을 제외한 나머지 3,000권을 지역 내 돌봄 기관에 배부해 어린이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기증된 도서는 창작동화, 과학, 한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어린이 전집으로 지역아동센터 5곳과 돌봄센터 2곳, 공동육아나눔터 3곳에 고루 전달했다.

광양시 고근성 도서관운영과장은 “코로나19로 독서 활동이 여의지 않아 힘을 아끼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뜻 깊은 선물을 보내주시는 기증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기증자의 뜻을 이어받아 도서관에서도 지역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자유롭게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보성 검백면 여성자원봉사회, 추석 온정 나눔

보성군 검백면 여성자원봉사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50세대에 송편과 과일을 전달했다. 여성자원봉사회원 30여명은 최근 직접 각 세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회 이이순 회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웃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소외계층과 지역민을 위해 앞장서서 봉사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검백면 여성자원봉사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밀반찬 및 김장김치 나눔, 취약계층 청소 봉사, 행사 지원 등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여수 여서동,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여수시 여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원들이 추석을 맞아 정성스럽게 만든 국과 반찬을 소외된 이웃 100세대에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반찬 나눔, 경로당 청소, 어르신 보살피기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새마을부녀회 고은숙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 더욱

뜻 깊게 느껴지며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운모 여서동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 봉사활동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사람을 향한 우리 동네’ 여서동을 만들기 위해 이웃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곡성 한울고, 마을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지진 마을주민을 위로하기 위해 한울고 교직원과 학생들이 곡성군 목사동면 농촌 풍경과 주민들의 모습이 담긴 80m 폭의 벽화를 그렸다.

국중화 한울고 교장은 “배움과 삶이 연결된 의미 있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자존감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활동이 계속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울고는 전남도 첫 공립대안교육 특성화고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파자마 만들기,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목공예, 바리스타, 퉁기타 무료교실을 열기도 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